

회원사 소식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세계 7위 타이어 메이커로 도약

미국의 유력 타이어 전문지인 '모던 타이어 딜러'가 집계한 2006년 세계 타이어 업체 순위에서 한국타이어가 7위를 차지해 지난 2005년 8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약 8% 하락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약 20% 매출 성장(달러 기준)을 보여 상위 11개 업체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다. 이 같은 순위는 지난 2001년 세계 11위에서 5년 만에 4계단 상승한 결과이다.

200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브리지스톤이 197억 달러의 매출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미쉐린이 190억 달러로 2위, 굿이어가 178억 달러로 3위에 랭크됐다. 이어 콘티넨탈, 피렐리, 스미토모가 4~6위를 차지했다. 창사 55년 만인 1996년에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3년부터는 매출 2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에도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프리미엄 자동차 메이커로의 OE 공급확대, 경영혁신 등을 통해 3조2,6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타이어 새 대표이사, 서승화 구주지역본부 사장 선임

지난 3월 5일, 서승화 구주지역본부 사장이 한국타이어의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서승화 사장은 입사한 이래 해

외마케팅팀 담당이사로 수출과 해외영업을 총괄해 왔고, 헝가리 공장 건설을 진두지휘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판단돼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사에 있어서 최적임자로 인정된 것이다. 서승화 사장은 해외마케팅팀 담당이사를 거쳐 해외영업본부장, 마케팅본부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구주지역본부장으로 일해왔다.

한편 지난 1997년에 대표이사에 취임해 10여 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 왔던 조충환 사장은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조 사장은 1997년 1조2천억 원 수준이던 회사 매출 규모를 지난 2006년 2조8천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성장시켰으며, 타이어업계 세계 7대 메이커로 키워냈다.

한국타이어, 독일 자동차 튜닝 전문지 타이어 비교테스트에서 1위

한국타이어의 UHP 타이어가 세계적인 메이커들이 참가한 타이어 성능 비교테스트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다. 3월 21일 독일의 자동차 튜닝 전문지 '아우토빌트 스포츠카(Autobild Sportscars)'가 실시한 타이어 성능 비교테스트에서 한국타이어의 UHP 타이어 '벤투스 S1 evo'가 종합평점 1위를 차지한 것이다. 16인치 UHP 타이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테스트에는 미쉐린 굿이어, 피렐리, 요코하마 등 10개 타이어 회사가 참여했으며, 평가항목은 핸들링, 제동성능, 회전저항, 소음 등 9개 항목이었다. 벤투스 S1 evo는 제동성능이 특히 뛰어나다고 평가됐으며 을 하반기 아우디에 공급 예정인 제품이다.

또한 독일 최고 권위의 공산품 평가 기관인 '슈티프트 바

렌테스트(Stiftung Warentest)가 실시한 테스트에서는 유럽 수출용 타이어인 '옵티모 K715'가 2위를 차지했다. 옵티모 K715는 마모성능을 강화하고 연비효율을 향상시킨 소형 승용차용 타이어로 올 하반기 가동 예정인 혁가리 공장의 주력 생산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마모성능과 회전저항 부분에서 유일하게 '매우 우수(Very Good)' 평가를 받아 친환경을 강조하는 유럽시장을 공략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과로 향후 한국타이어는 유럽 교체시장 판매 확대와 유명 자동차 회사의 타이어 납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중국공장, 누적 생산량 1억개 돌파

한국타이어가 중국공장 가동 9년 만에 누적 생산량 1억개을 넘어 화제가 됐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준 중국 내 총 타이어 생산량은 약 4억3,300만개로 연간 15%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집계했다. 브리지스톤, 미쉐린 등 글로벌 타이어 메이커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타이어는 중국 절강성 가흥시와 강소성 회음시 두 곳에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가흥공장 부지에 R&D 센터를 신축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 최진욱 중국지역본부장은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숫자에 만족하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타이어 유통점인 티스테이션을 확대시켜 명실공히 1위 브랜드로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타이어 중국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하이 GM, FAW 폭스바겐, 남경 피아트, 베이징 현대 등 30여 개업체에 공급되고 있으며, 중국 내 OE공급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중국시장에 티스테이션 직영1호점 오픈

지난 4월 13일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중심 경정비 프랜차

이즈인 티스테이션 상해점 오픈식이 열렸다. 중국 내에서 최초 직영 1호점으로 운영되는 상해점은 한국타이어의 전략적인 유통망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중국 현지 고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은 한국에 이어 티스테이션이 소개되는 두 번째 시장이다. 2004년 6월, 국내에 첫 선을 보인 티스테이션은 대형 규모의 매장과 고급 작업설비 구비, 타이어 판매를 주요업무로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개점 2년 6개월 이 지난 현재, 전국 가맹점이 100개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난징 트럭버스용 타이어공장 기공식

금호타이어가 중국 난징에 트럭버스용 전용 타이어 공장을 설립한다. 이 공장은 중국 난징, 텐진, 창춘지역의 승용차용 타이어 공장에 이어 중국에 설립하는 네번째 공장으로, 트럭버스용타이어를 전문으로 생산한다.

동공장은 기존 금호타이어 난징 승용차용 타이어 공장에서 약 27km 떨어진 난징고신기술산업개발구내 9만여평 부지에 약 9천 9백만불을 투자, 연산 30만개 규모로

2008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최근 중국내 자동차시장은 연간 10%에 달하는 고속성장과 중국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트럭과 버스의 수요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향후 중국 내 트럭 버스용 타이어 시장의 성장률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최신설비 설치를 통한 고품질의 타이어를 생산하여 중국 내수시장과 신차용 타이어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창춘, 텐진에 각각 공장 착공과 완공을 차례로 추진하는 등 중국내 다공장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국내 3개 공장(광주, 곡성, 평택)과 중국내 3개 공장(난징, 창춘, 텐진) 그리고 베트남 공장(빈증성) 등 오는 2008년말에는 국내외에서 총 6,400여만 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영국 MODEC社 친환경 차량에 OE공급

'아름다운 기업을 표방하는 금호타이어는 영국의 친환경 전기자동차인 모덱(MODEC)社에 화물트럭용 타이어 KRS03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MODEC측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위한 초기 프로젝트부터 금호타이어가 참여하였다.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은 EU 타이어제품 안전 인증 마크 및 EU 저소음 인증 마크를 획득했으며 불규칙 마모 방지 설계로 고속주행 중 우수한 조종안정성과 저연비 성능을 구현하며 내마모성이 높은 제품으로 젊은 노면에서의 접지력에서도 높은 장점이 있다.

모덱(MODEC)차량 구매자들은 친환경적일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도로통행세, 혼잡통행료 등이 면제되므로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차량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덱(MODEC)社는 기후 온난화에 대응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친환경분야에서는 선구적인 기업으로 금호타이어의 친환경 경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

호타이어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친환경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금호타이어컵 2007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코리아투어 친선경기 개최

금호타이어가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축구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초청하는 친선 경기에 타이틀 스폰서로 나선다.



"금호타이어컵 2007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코리아투어"로 명명된 이번 경기는 오는 7월 2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과 현재 국내 프로축구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FC 서울 팀과의 대결로 이루어진다.

이번 아시안 투어와 관련하여 4월 27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에서 오세철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하여 데이빗 길(David Gil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장, FC 서울 이완경 사장,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 워릭 모리스(Warwick Morris) 주한영국대사 등이 참석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투어의 성공적인 개최와 오는 7월에 한국에서 열릴 초청 경기의 의미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시간을 가졌다.

금호타이어 오세철 사장은 "본 경기를 통해서 축구를 사

랑하는 유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키워가기를 바라며, 국내 축구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구전문가들은 이번 초청 경기를 계기로 2002년 한일월드컵을 통해 보여준 축구에 대한 뜨거운 합성과 열기가 다시 한 번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강력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후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터스포츠 마케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타이어, 프리미엄급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신상품 출시

금호타이어가 중장거리용 화물트럭과 시외·고속버스용 타이어 4종을 출시하고 4월 6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전국 대리점주 및 구매업체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품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에 금호타이어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화물트럭용타이어인 ‘KRS15’, ‘KLT02’와 시외·고속버스용인 ‘KRA23’, 시내버스용 타이어인 ‘KCA11’이다. 이번 TBR신상품 중 프리미엄급 중장거리용 화물트럭타이어인 ‘KRS15’ 제품은 연비와 주행거리를 대폭 향상시킨 제품으로 개당 38만원 수준이다. 시외·고속버스용인 ‘KRA23’은 불규칙 마모를 방지하고 고속 주행 안정성 및 승차감이 우수한 제품으로 개당 30만원 수준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뉴타운 건설 및 혁신 도시 사업 추진으로 대형트럭 및 버스의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TBRT타이어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호타이어는 TBRT타이어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하고 품질 및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넥센타이어

N3000·CP641, 러시아 박람회 메달 획득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린 유럽의 최대 타이어 전시회인 ‘2007 Moscow tire & rubber 박람회’에서 넥센타이어의 주력 수출제품인 N3000과 CP641 두 모델이 각각 금상과 은상을 훙쓸어 우리나라 타이어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

주력 UHP 타이어인 N3000이 금상을 수상한 것은 세계 최대 시장의 하나인 유럽시장에서 세계 유수업체의 UHP 타이어와 견주어 제품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입증 받은 의미 있는 수상이며, 은상을 수상한 CP641 모델도 고성능 제품으로 유럽지형의 드라이빙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받아 앞으로 수출시장에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개최되는 Moscow Tire & Rubber 박람회는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으며 올해 행사에는 총 25개국에서 106개 업체가 참가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수상으로 신흥 타이어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품격 UHP 타이어 N7000 출시

제동력과 핸들링, 빗길주행 안정성 뿐만 아니라 승차감을 획기적으로 높인 신제품 ‘N7000’이 출시됐다. 지난 3월 6일 넥센타이어는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신제품 ‘N7000’ 발표회를 열고 “최근 고급차와 수입차의 증가 추세에 맞춰 고급 타이어에 대한 수요를 겨냥한 N7000을 출시,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N7000은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한국의 지형과 기후특성, 차량의 고성능화 추세 및 운전습관을 다각도로 고려한 제품으로서, 개발과정에서 18개월의 연구기간과 총

4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했으며 해외 유수 평가기관의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이미 검증받았다.

N7000의 성능을 살펴보면, 먼저 4개의 그루불을 채용해 빗길 배수능력을 극대화하고 타이어 성능기준의 중요요소인 안정성과 제동성을 만족시킨 점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주행시 소음을 최소화시켜 승차감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화음 설계 기법은 주행시 발생되는 음의 높이(Pitch), 음의 크기(Loudness), 음색(Timbre) 등을 최적화하고 주행 중에 발생되는 Tire Sound Quility를 더욱 향상시켰다.

넥센타이어는 “신제품 N7000에는 국내 타이어사들이 지금까지 구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돼 있다”며 “N7000을 통해 보다 뛰어난 성능과 감각의 고급 타이어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고급 타이어 시장을 평정하겠다”고 밝혔다.

2006 연도상 대회 개최

넥센타이어는 지난 3월 6일 서울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에서 신제품 N7000 발표회와 함께 ‘2006 연도상 대회’를 개최했다.

2006 연도상 대회는 지난 1년간 전국 대리점별 실적을 합산하여 판매 향상 및 이미지 제고에 힘쓴 우수 대리점의 공로를 치하하는 행사로서, 홍종만 부회장, 강호찬 부사장, 임원진과 전국 지점 및 100여개의 대리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 부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올해는 내수시장 확대와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더욱 도약할 예정이다”라며, “올해 우수대리점 시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리점주를 위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07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개최

지난 4월 1일 강원도 태백준용경기장에서 ‘2007 넥센타

이어 RV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됐다. 올해는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경기도 안산 등에서 6회에 걸쳐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지난해 국내 최초로 2회에 걸쳐 RV 챔피언십을 개최해 레이싱 붐을 일으킨 데 이어 올해도 레이싱 문화에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고대수의 대형 대회답게 간판급 드라이버가 대부분 참여했으며 참가대수가 100대에 이르렀고 갤러리도 약 2000명이 운집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넥센타이어는 홍보 및 VIP 부스를 설치, 포뮬러 르노, 루 오버턴 시뮬레이터를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으며, 드리프트 시범주행 및 체험 레이스차량 동승 서킷 주행 등의 체험행사와 함께 레이싱 모델과 경주차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국내 RV/SUV 차량 소유자들에게 유익한 모터스포츠로 문화를 만들고 매년 행사로 지속적인 저변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RV 챔피언십 대회는 이번 4월 행사를 시작으로 5월, 6월, 7월, 9월, 10월까지 6개월 동안 더욱 풍성한 장기 레이스로 개최될 예정이다.

‘가장 입사하고 싶은 중견기업’ 1위 선정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신입 구직자 1,42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중견기업 1위에 '넥센타이어'(7.0%)가 꼽혔다. 넥센타이어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기업 발전 가능성 33.6%', '기업 이미지 23.8%', '기업 안정성' 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뒤따르는 기업으로는 삼지, 까사미아, 행남자기, 모나미, 주연테크 등이 선정됐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조사 결과 인지도가 더욱 향상됐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향후 인재 확보 및 양성에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법인 ATLANTA에 제 2 창고 오픈

넥센타이어 미국 법인은 지난 3월 20일 동남부 Georgia 주 Atlanta시에 미국 제 2 창고를 오픈하였다. 2005년 12월 문을 연 LA 소재 제 1 창고에 이어, 105,000 SQF(약 3,000평) 넓이로 최대 150,000개본의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번 Atlanta 창고를 오픈함으로써, 미국 법인은 총 31만본의 타이어 저장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외에도 New Jersey와 Chicago에서 거래선 창고를 공동 이용키 위해 현재 해당 거래선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미 중부지역인 Texas 지역에 제 3 창고를 오픈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번 Atlanta 창고는 오픈한지 열흘만에 14,000개의 타이어 판매를 기록하며 올해 미국 법인 목표치인 2억불 판매 초과 달성을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법인은 "이번 Atlanta 창고 오픈을 통해 넥센타이어의 UHP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2008년도부터는 중국 청도 공장 제품 판매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주)흥아

공정별 개선 S.S(스케치북 개선제안 프로젝트) 우수제안 사례 발표회 개최

2007년 3월20일, 27일 양일에 걸쳐 (주)흥아 본사 강당에서 2006~2007 공정별 개선 S.S 우수제안 사례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공장별 S.S제안 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사례발표와 부서별 우수제안자의 소감발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성원 사장은 우수제안자들에 대한 치하와 함께 S.S개선 활동이 더욱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흥아의 좋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MY MACHINE 운동 우수부서 선정

2006년 하반기 MY MACHINE 운동 진행에 따른 평가결과로 1공장 가황반, 2공장 정련반이 각각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상기 부서는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기계를 상시 점검 및 관리하여 고장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에 매진한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 부서로 선정될 수 있었다. 특히 1공장 가황반의 경우 05년 상, 하반기 우수부서 선정에 이어 06년 하반기 또한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타부서의 귀감이 되고 있다. 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에는 각각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2007년 제2차 (주)흥아 전국지점장회의 개최

지난 4월25일 2007년 제2차 전국지점장 회의가 (주)흥아 본사에서 개최되어, 각 지점별 1/4분기 실적 평가와 향후 지점 영업 활성화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노사합동수련회 개최

지난 4월 14,15일 양일간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주)흥아 노사합동수련회를 개최, 노사회합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